

삼성코닝정밀, 2004년 세계 1위 목표

2003년 매출 7000억원 이어 1조원 목표 ... 기관유리 수급 안정화 꾀해

TFT-LCD용 기관유리를 생산하는 삼성코닝정밀유리가 1월28일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2004년 매출 1조원 달성을 핵심으로 하는 경영목표를 결정했다.

삼성코닝정밀유리는 TFT-LCD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연평균 70%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으며, 2003년에는 7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.

이에 따라 2004년에는 세계 1위의 생산 및 시장점유율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천안 사업장의 생산을 크게 늘리고 6세대, 7세대 등 차세대 기관유리를 조기 양산하는 등 시장선점을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했다.

또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객사 생산라인별로 밀착 대응해 기관유리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품질보증체계 고도화, 기술정보제공, 기술교류회 개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삼성코닝정밀유리 이석재 사장은 “전반적인 LCD 시장의 성장, 패널 생산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등 외부환경에 대응해 차세대 제품의 양산과 품질향상, 전략적 증설을 통한 경쟁력 차별화로 창립 9년만에 매출 1조원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”고 설명했다.

한편, 삼성코닝정밀유리는 기존 생산기술·영업담당을 본부체제로 확대·개편하고 기획·혁신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1/30>